

주님의 귀한 은혜가 파라과이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성광 교회'와 성도 여러분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과학 경시대회' 및 '작품 전시회'

지난 9월 '과학 경시대회'와 10월에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과학 경시대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창의력과 발표력을 기르고 아이들속에 잠재해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품 전시회'도 금년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작품 전시회'는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폐품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절약하는 습관과 아름다운 삶을 꾸미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학 경시대회)



(작품 전시회)

2)중남미 선교 대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에서 사역하는 100여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단 한번의 인생을" 이라는 주제로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가 '교육 선교'에 대하여 발제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15년전, 교회 건축(2층) 공사중 금식 기도중인 아내 남선교사에게 주님께서 학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분반 공부를 위해 만든 교회 1층 교실을 이용하여 학교를 시작하였지만 학교라고 하기엔 여러가지로 부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하셨기에 오늘까지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주변 2km 안에는 15개 이상의 공립, 사립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학생수가 1500여명이 되는 고등학교의 교감을 비롯하여 주변 다른 학교 교사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낼만큼 지역 사회에서 자리잡은 개신교 학교로 성장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의 학교 사역을 바탕으로 24개의 전략을 발표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1)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라 2)매일 예배를 드려라 3)차별화를 위해 부단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리고 4)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라"는 것으로 결론 지으면서 주님께서 중남미 선교사들에게 '교육 선교'에 대한 주님의 비전을 부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쳤습니다.

2)재정 강의 세미나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회계사인 박병갑 집사님을 강사로 3박 4일동안 목회자 및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재정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6명의 목회자및 교회 리더들이 모여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특히 빚을 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모두들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에 로베르도 목사는 그 동안 돈에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그의 아내 또한 빚을 지고 생활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파라과이인들이 보통 한 두가지 많으면 그 이상 물건을 '월부'로 구입하는 습관이 있어 적은 수입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재정 사용을 통하여 목회자 및 리더들이 삶에 회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쁘리멜 아물' 교회및 지교회의 목장 부흥과 '제자 훈련'을 위하여.
- 2.'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 3층 공사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 3.목회자 세미나'와 '교도소 사역'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 4.'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 2019년 개교와 학생 모집을 위하여.**
- 5.동역할 단기 선교사를 위하여.
- 6.김정훈 남영자 선교사의 영육간의 충만함을 위하여.